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6.30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- 美 정보기관, '21년 미국 의사당 폭동사태* 사전 경고 무시
 - 6.28 언론은 국토안보부와 FBI가 '21. 1. 6 국회의사당 폭동 前 온라인을 통해 위협 요소 등의 정보를 취득했지만, 심각성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해 정보를 공유하거나 경보를 울리지 않았다고 보도
 - * 同 사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바이든 공식 차기 대통령 인준을 막기 위해 점거한 사건(사망 5명, 부상 121명)
- 美 캘리포니아주, 증오범죄 증가 추세 속 아시아인 피해 감소
 - 6.27 언론은 美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공개한 '22년 증오범죄 보고서를 인용, '22년 同 지역 증오범죄율이 '21년 대비 증가(1,763→2,120건<20%>)하였으나, 아시아인에 대해서는 급격한 감소세(250→140건<43%>)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
 - ※ 증오범죄 피해자로 '흑인'이 가장 많이 지목, 동성애자·유대인 겨냥 범죄도 지속 증가

유럽

- 獨, ISIS 가담 및 소수민족 학대 여성 징역형 선고
 - 6.22 언론은 독일 법원이 '15년 시리아를 통해 ISIS에 가담한 후 야지디족 여성에게 인신매매·성폭력 방조 등 反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「나디네 케이(37세, 女)」에게 징역 9년 3개월을 선고하였다고 보도
 - ※ '21년 獨 법원은 세계 최초로 ISIS가 야지디족(야지드교를 신봉하는 이라크 소수 민족)에게 저지른 범죄를 제노사이드(인종·종교 차이로 박해하는 행위)로 인정하는 판결 선고
- 튀르키예, 스웨덴에 PKK 시위 저지 촉구
 - 6.26 「에르도안」 튀르키예 대통령은 UN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불법단체인 쿠르드노동자당(PKK)이 스톡홀름에서 시위를 못 하게 한다면 NATO 회원국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스웨덴을 압박
 - ※ 스웨덴이 최근 테러관련 법안을 개정했음에도 튀르키예 정부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으며, PKK가 여전히 자유롭게 시위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부언

아 · 태평양

- 인도, 中의 뭍바이테러 주모자 테러리스트 지정 반대에 반발
 - 6.22 언론은 인도가 '08년 뭍바이 테러 주모자이자 테러단체 라슈카르-에-타이바(LeT) 사령관인 「사지드 미르」에 대해 유엔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리는 것을 중국이 공식적으로 반대하자 강력 반발했다고 보도
 - ※ '22.9월 인도·美는 同人에 대해 테러리스트 지정을 요구하였으나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中이 결정 보류 후 9개월 뒤 '공식 반대'를 발표
- 韓, OPCW*(화학무기금지기구) 연계 국내 첫 도상훈련 실시
 - 6.28 언론은 국군화생방사가 OPCW와 공동으로 최초 훈련을 기획하여 화학 상황 관련 초동조치, 상황분석 등의 대응 훈련과 토의를 통해 상호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등 성과 있는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
 - * 화학무기금지기구(OPCW)는 1997년에 발족된 화학 무기금지협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국제기구로 회원국들에 대한 강제조사 권한을 보유
- UN, 탈레반 집권 후 아프간 內 민간인 테러 피해 분석
 - 6.27 UN 아프간지원단(UNAMA)은 탈레반이 집권한 '21.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프간에서 테러 공격으로 민간인 1,095명이 사망하고 2,679명이 다쳤으며, 이전보다 테러 공격의 치명률이 높아졌다고 발표
 - ※ 탈레반 정부는 아프간 內 테러 위협은 탈레반 집권 전부터 지속된 것이라 반박

아프리카

- 아프리카연합 평화유지군, 소말리아 주둔 병력 감축 시작
 - 6.22 언론은 소말리아 주둔 아프리카연합(AU) 평화유지군(ATMIS)이 '24년 말까지 소말리아 軍·警에 치안 이양을 완료한다는 계획에 따라 알샤바브의 테러 공세 강화에도 병력 감축을 시작했다고 보도
 - ※ 현재 우간다·케냐·부룬디·지부티·에디오피아 군인 2만명이 주둔 중이며 '23.6월까지 군인 2천명을 감축하도록 한 유엔 결의안에 따라 감축 개시

아프간, 라마단 기간 '차량 자폭 테러'

- '17.6.22 아프가니스탄 남서부 헬만드州 라슈카르가 뉴카불은행 앞에서 차량을 이용한 자폭 테러가 발생하여 최소 36명이 사망하고, 59명이 부상
 - 테러범은 '이드 알 피트르*(Eid Al Fitr)' 축제를 앞두고 돈을 찾기 위해 은행을 방문중인 수백여명을 노리고 자폭 테러를 자행
 - * 30일간의 라마단 기간 동안 힘과 용기를 준 알라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한 이슬람교 명절이며, 고통스러운 금식을 수행한 것에 대한 보상
 - 경찰은 "과거에도 월급날 은행에 몰리는 군인·경찰을 겨냥한 테러가 빈번했으며, 이번에는 민간인 희생자가 많다"고 발표
- 테러 직후, 아프간 정부와 10년 이상 內戰을 이어오며 헬만드州 상당 부분을 장악한 탈레반이 배후를 자처
- 또한, '라마단 기간에 테러를 하면 축복을 받는다'고 믿는 극단주의자들이 상당수 있어, 同 시기에 테러가 더욱 집중되는 경향
 - ※ 올해 라마단 기간에는 중동·아프리카 외 유럽에서도 극단주의단체가 주도하는 테러가 발생하여 총 260여명이 사망하는 등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

테러 단체

Weekly Terrorism Trends

< 탈레반(Taliban) >

- (테러단체지정) 캐나다('13.5), 러시아('03.3), 키르기스스탄('06.12), UAE('14.11), 카자흐스탄('05.3)은 테러단체로 지정, UN·美·英 등은 평화협상을 고려, 테러단체로 未지정
- (목표/이념) 아프간內 외세축출 및 이슬람 신정국가 수립('94.8 결성) / 이슬람 극단주의
- (조직규모) 약 55,000~85,000명('20.5, UN), 100,000명('19.8, 美 민주주의 수호재단)
- (주요특징)
 - '01.9.11 美 테러의 배후인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 인도 거부로 아프간 주요 지역에서 축출
 - '21.4 美軍 철수 발표 후 급속도로 세력 확장, '21.8.15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장악 및 대통령궁을 점령하며 20년만에 정권 再 장악